

남미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박바울 목사님 그리고 JSB Mission Fund Team께

그동안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잘 지내고 있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귀한 후원으로 인해 남미 농아선교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고 제가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선교보고에서 알려드렸지만 지난 5월 갑자기 큰 홍수가 발생하여 성경모임과 예배를 드렸던 일반 교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대피처로 교회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홍수 피해가 없는 농아인 성도 집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성경을 계속 가르칠 수 있었고 매주 주일 예배를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이 닥쳐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모여 성경을 배우고 신앙이 더욱더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모임이 폐하지 않고 더욱 모일 수 있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홍수 때문에 계획했던 지방의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인도로 홍수 피해가 없는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미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지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카파오 다 카노아에 함께 성경을 배우고 있는 농아성도 1명을 데리고 가서 함께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이 농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을 통해 배웠던 잘못된 지식과 교리를 배워 계속하여 설명하고 전파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게 하였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는 농아인 4명과 함께 투바랑에 가서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줌(zoom)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저는 7월 11일까지 브라질에서 체류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정도 조지아주에서 휴식을 취하고 콜롬비아에 갈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계속해서 콜롬비아 졸업생들과 성도들의 간곡한 방문 부탁이 있어 잠시 콜롬비아에 방문하여 졸업생들의 사역을 돕고 교육하러 방문 할 예정입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남미 선교활동에 힘이 되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제목

1. 남미에서 계속해서 안전하게 선교 할 수 있도록
2. 농아인이 성경을 충분히 깨닫고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3. 저의 건강을 위하여

남미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쁘르뚜 알레그리 선교활동



카파오 다 카노아 선교활동



남미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카파오 다 카노아 선교활동



투바랑 선교활동



남미 농아 선교

김정철 선교사

투바랑 선교활동



Zoom 성경모임

